

가난하고 소외된 자, 그리고 병든 자를
위해 수도회의 정신을 실천한다.

포항성모병원

그곳은 종교가 주는 편안함과 이능함을 옮겨다 심었다. 고즈넉한 병원들의 성모마리아상이
이 몸은 물론 마음의 병까지 치유해줄 것만 같고, 병원 한 칸에 자리한 치매요양원에서
흘러나오는 엷박자 노랫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온다. 노란 은행나무와 푸른 하늘이 아름다운
날, 종교가 주는 믿음과 사랑이 병원의 최첨단 의학기술과 만나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포항성모병원을 찾았다. ■취재 정은주





종교가 주는 믿음과 사랑이 의학기술과 만난 곳

사람이 저마다의 색깔을 가지듯 병원도 자신만의 색을 갖는다. 포항성모병원은 색채의 강렬함은 느껴지지 않지만 분명, 다른 병원들과 구별되는 뚜렷한 색을 가지고 있다. 따뜻함과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특유한 느낌을... 그 색깔 때문에 여기가 병원이었던가...하고 잠시 멍해지기도 한다.

도시빈민과 산업근로자 위해 1977년 설립

포항성모병원은 사랑과 박애와 포교정신을 실천한다는 종교적 이념과 동해안지역 주민들과 산업근로자들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이라는 의료적 이념이 만나 설립된 곳이다.

재단법인 예수성심시녀회는 한국전쟁 당시 전쟁고아와 양로자를 보호해오다 국가적으로 경제적 안정을 찾아가고 사회복지 정책이 강화되면서 고

아와 양로자수가 줄어들자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던 중 의료기관을 설립하게 되었다.

당시 예수성심시녀회가 관심을 둔 것은공단지역 유해작업장 근로자의 건강관리와 무의촌 지역민들의 질병예방 및 치료,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극빈자들을 위한 봉사활동 등이다. 이에 따라 1977년 포항제철 등 대규모 공업단지가 자리한 포항지역에 130병상 규모로 문을 열게 됐다. 물론 그 설립이념은 오늘에까지 이어져 이 지역 산업근로자와 도시빈민들을 위한 특화된 센터와 다양한 의료봉사활동으로 실천되고 있다.

포항성모병원은 현재 500병상 규모로 포항지역에선 단연 가장 큰 병원으로 손꼽히고 있다. 병원은 지상 4층짜리 구관건물과 지하 1층 지상 8층의 신



2

1. 포항성모병원 내부
2. 장례식장 내부
3. 호스피스 병동
4. 개원당시 전경

관건물, 건강증진센터가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12월 완공되는 류마티스·재활센터도 눈길을 끈다. 하루 평균 외래환자는 1천1백여명이며, 입원환자도

450여명에 이른다.

일반병실료로 1인실 호스피스병동 이용

포항성모병원은 인간의 건강과 죽음이 경제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현실을 거부하고 있다. 소위 돈이 되지 않아도 필요하다면, 그 필요성만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일례가 호스피스병동과 응급실이다.

이 병원은 지난 2000년부터 환자의 남은 생애를 인간답게 유지시켜주고 가족들의 고통과 슬픔을 덜어주기 위해 호스피스병동을 개설해 운영해오고 있다.

특징은 6개의 병상이 모두 1인실로 운영되면서 비용은 일반병상 병실료와 같다는 점이다. 때문에 죽음을 목전에 두고 종교적인 힘이나 누군가의 도



4





1

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큰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다. 호스피스병동에는 간호사는 물론 수녀님이 한 분 상주하면서 종교적 위로도 더해준다.

물론 1인실 호스피스병동은 운영할수록 적자다. 이 병원 관계자는 “수익은 마이너스이지만 임종준비를 도와주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며 “환자들이 호스피스병동을 찾는 한 앞으로도 수익과 관계없이 계속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응급실도 마찬가지다. 병원에 응급실이 있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이치지만 응급의료수가가 워낙 낮아 원가에도 미치지 못할뿐더러 지방에선 응급의학 전문의를 구하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 이같은 상황에서 응급환자도 많지 않은 지방병원에서 응급의학 전문의를 초빙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포항성모병원의 진정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환자사랑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류마티스·재활센터 등 특화된 진료제공

점차 고령화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성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포항성모병원 은 이같은 사회변화를 반영, 노인성질환과 만성퇴행성질환을 치유하기 위해 경북지역에선 처음으로 지난 2001년 류마티스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최근들어 환자가 증가하자 효율적인 진료를 위해 별도 건물을 신축해 12월에 모습을 드러낸다. 새로 지어진 류마티스센터는 최신 의료기기 등을 비치했으며, 진료와 검사, 수납, 접수 등의 공간을 일원화하고 동선도 최소화시켰다.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수치치료실을 보유하고 있는 이 병원 재활센터에선 근골격계질환이나 뇌손상, 척수손상, 뇌성마비 등 일상생활에 지장받는 환자들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다.

스포츠의학센터도 포항성모병원의 자랑거리. 2004년 12월 개설하는 스포츠의학센터는 Biodex, 운동부하검사기 등 스포츠의학 검진장비와 각종 운동치료기, 운동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스포츠의학 전문검진 및 스포츠 운동치료를 실시하게 된다. 이외에도 비뇨기센터와 관절경센터 등에서 특화된 진료를 선보이고 있다.

PET-CT, MRI 등 의료기기 및 시스템도 단연 으뜸

포항성모병원의 의료기구나 의료시스템은 국내 유수의 병원과 비교해 전혀 손색이 없다.

이 병원은 최근 대형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급속히 도입되고 있는 16슬라이스 PET-CT를 구비하고 있으며, MRI도 짧은 시간에 정밀한 영상정보로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최고급 기종으로 갖추고 있다. CT도 기존 CT에 비해 검사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고 3차원 영상을 정확히 구현할 수 있는 제품이다.

이밖에 포항성모병원은 2003년부터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을 구축해 운영해오고 있다.

Full PACS시스템은 Film을 없애 진료대기 시간을 단축시켰으며, 더욱 정확한 진단도 가능케 했다. 또 관상동맥질환자의 국소벽장해를 관찰하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한 심혈관 초음파 검사장비도 최첨단으로 갖추고 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물품전달이 아닌 정성으로

포항성모병원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신청자 몇 명 받아서 특정지역에서 하루 이를 진행하거나 수익사업으로 물품을 모아서 불우이웃에 전달하는 그런 형태의 봉사활동이 아니다.

포항성모병원은 전직원, 전부서가 다양한 형태로 봉사활동에 나선다. 무료진료활동은 물론 바자회, 집수리 또는 집짓기, 결식아동 돕기, 해변정화 활동, 농어촌 일손 돕기, 독거노인 돕기 등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에 부서단위로 참여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제공한다. 물론 일회성이 아니라 정기적으

1. 재활센터
2. CT실
3. MRI촬영
4. 지역봉사활동





1. 건강강좌
2. 옥외휴게실
3. 주차장빌딩

로 활동한다.

특히 자선바자회나 장학기금 마련 수익활동 등 각종 봉사활동을 통해 마련된 금전은 절대 그냥 전해주지 않으며, 특히 병원진료비를 내주지 않는다는 게 병원의 원칙이다.

병원 관계자는 “직원들의 봉사활동이 병원경영을 위한 것이란 오해를 받을까 해서 그 돈으로 절대 우리 병원 진료비를 내주진 않는다”고 말했다.

병원측은 진정한 도움을 위해 집세를 못 내고 있는 가정에는 대신 집세를 내주고, 다른 병원에 진료비를 못 내고 있을 경우 그 진료비를 지불해주거나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겐 바자회 수익금으로 자재를 사서 직원들이 직접 집을 지어준다는 것이다.

포항성모병원은 필리핀에 파견돼 유치원 사업을 벌이고 있는 수도회 측으로부터 현지 의료환경이 열악하고 경제력이 현저히 낮다는 말을 듣고선 지난해부터는 필리핀 무료진료활동도 벌이고 있다.

포항성모병원의 환자를 위한 배려는 병원 곳곳에서 엿볼 수 있다.

중환자보호자 휴게실을 방으로 만들어 설 수 있



도록 배려해 어느 병원들처럼 보호자들이 복도에 즐비하게 자리하지 않아도 된다.

신관 한 칸 테라스에 마련된 옥외 휴게실은 포항 시내의 전경도 한눈에 내다볼 수 있으며, 환자나 보호자들이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450여대의 주차가 가능한 주차빌딩이나 올해 초 리모델링한 병원화장실, 세면장, 잘 다듬어진 병원조경 등에서도 환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가 묻어난다. 종교적 사랑과 의학기술의 상승작용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04



이종녀 원장의 카리스마는 투명경영, 열린경영에서 나온다.

포항성모병원에선 노사분규가 없었다, 임금협상도 없다. 전직원에게 경영 실적을 낱낱이 공개하고 병원이 여건이 되면 먼저 임금을 올려주고, 대신 병원이 어려울 땐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이것이 그녀가 가진 힘이다. 온화한 수녀 이종녀 원장이 가진 카리스마는 '이해'와 '열린경영'에서 출발했던 것이다.

이종녀 포항성모병원 원장

병원이념

재단법인 예수성심시녀회가 설립한 포항성모병원의 이념은 가톨릭 교회의 전통인 예수그리스도의 치유 봉사를 우리안에 재현하고 본받으며, 예수성심의 사랑을 실천하고 전하며 끊임없이 전인적 의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 '마음을 열고 직원들과 대화하면 안되는 게 없다'

“저희 병원은 단순히 환자의 육체적 고통을 치유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임직원들의 손길 하나 하나에는 환자들의 정신과 영적인 부분까지 치유하고자 하는 노력과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이종녀 원장은 자신을 특별한 게 없고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소개한다.

이 원장은 “직원들이 병원을 신뢰하고 잘 따르고 있으며, 병원과 직원간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인해 별다른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행정업무가 성격에 맞고 의사들의 협조도 잘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병원장이 넘어야 할 산 중의 하나가 노조. 그러나 이 원장은 2000년 이후 노사분규가 한번도 일어나지 않았고, 임금협상을 하지 않는 것만 보아도 자신

은 운이 좋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원장은 매년 연말이면 전직원 설명회를 통해 경영실적을 공개하고 여기서 임금인상 여부도 미리 말해준다. 여건이 되면 직원들이 요구하기 전에 미리 인상을 해주고, 병원형편이 어려울 때는 미리 양해를 구한다. 이 원장은 그냥 ‘운’으로 치부하지만 여기에서 그의 경영철학을 읽을 수 있다. 이것이 그가 물 흘러가듯 거침없이 그러나 조용하게 병원을 운영하는 비결일 것이다.

사랑을 실천하고 전인적 의료를 제공한다는 병원 이념은 병원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병원 밖에서도 널리 행해지고 있다. 이 원장은 무의촌지역 의료방문 사업과 자선바자회 등 다양한 사회사업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까지 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며, 매년 해외의료봉사를 통해 국외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1



2



3

1. 지역의료봉사
2. 건강증진센터
3. 해외의료봉사

* 마일리지제도 등 직원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 활용

이 원장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병원경영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친절직원이나 고객관리, 직원제안, 부서평가 등을 현재 시행중이며, 추후 그 영역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개인마일리지제도를 도입, 매년 마일리지 점수가 높은 직원들에 대해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등 직원의 능력을 개발하고 능동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도 하고 있다.

이 원장은 직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교육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근무연차별 계층교육이나 직무교육뿐 아니라 어학이나 컴퓨터교육 등 직원들이 원하는 교육에도 지원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각종 사이버강좌 지원 등 직원들이 보다 다양한 교

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신경쓰고 있다.

개원한지 27년. 짧지 않은 기간동안 포항성모병원이 흔들림없이 지역을 대표하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 원장은 말한다.

그는 “늘 성모가족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과거에 해운 것처럼 앞으로도 잘해 나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직의 질적 성장은 개인의 질적 성장 없이 불가능하며 직원의 경쟁력이 병원의 경쟁력”이란 게 이 원장의 생각. 단순히 지역에서 큰 병원이 아니라 지역민으로부터 진정으로 사랑받고 신뢰받고, 지역민이 필요로 하는 병원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소망도 덧붙였다.

그는 2010년이면 아마 동해권을 대표하는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포부를 밝힌다.  2004